

글리세린 가격인상

공급부족으로 KG당 50원 인상 ... 상승 지속 전망

글리세린이 연초보다 KG당 약 50원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글리세린은 비누시장의 비수기로 인한 국내 지방산의 생산감소와 동남아산의 중국유입으로 인한 수입물량 부족 등으로 지난 3~5월 품귀현상을 보여 가격이 상승, 98%가 1400원, 94%가 1050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. 95% 글리세린은 전매용으로 1072원선에서 입찰되고 있다.

글리세린은 우지·팜유·야자유 등에서 지방산과 병산되는데 국내에서는 럭키·애경·태평양·평화유지·동산유지·무궁화유지 등 비누제조 기업들이 주로 우지를 원료로 해 생산하고 있다.

국내 글리세린 수요는 92년에 1만3000톤 규모로 이 중 의약용이 1200~1300톤, 화장품용이 약 800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매용으로는 1000톤, 식첨용으로 소량 사용되고 있다. 이외에 약 900여톤이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2년 국내 글리세린 생산은 1만2426톤으로 이 중 1만1303톤이 국내소비, 1140톤이 수출됐다.

93년 1/4분기에는 2429톤이 생산, 수출은 13톤에 그쳤으며 2/4분기에는 2734톤이 생산돼 수출은 전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.

반면, 수입은 증가해 1/4분기에는 419톤, 2/4분기에는 985톤이 각각 수입됐다.

글리세린 주 수입국가로는 말레이시아·인도네시아 등지로 팜유·야자유 등을 원료로 생산된다.

글리세린 수입가격은 톤당 1050달러로 KG당 약 1000원선에 판매되고 있다.

글리세린은 비누 제조의 원료인 지방산 생산시 생산되는 부산물로 동식물 유지를 가수분해하여 얻어진다.

이때 사용되는 유지로는 동물성 우지 및 식물성 팜유·야자유·팜커넬유 등이며 쌀의 미강유에서도 분해, 추출된다.

한편, 세계적으로 글리세린은 수요에 비해 생산이 5~9% 가량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등에서 공급이 더욱 부족,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화학저널 1993/10/4 · 11>